**우연히 고향에 잠들다**

**s#1. 서양의 공동묘지/낮**

흐리고 스산한 날씨.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어느 비석 위, 정통으로 내리치는 번개

CG. 비석 윗부분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땅속까지 번갯불이 타고 들어간다.

수백조각으로 산산이 잘게 부서져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비석.

화식(E) 4번째 벼락을 맞았지. 무덤속에서 말야.

비석은 아주 산산조각 났고.. 무덤속 유골도 박살이 났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말이지.

**s#2. 동네 술집/밤**

술집에는 3명의 친구(화식 ,수만, 토중)가 탁자에 둘러 앉아있다.

탁자 위에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데, 창 밖 비추면 굵은 빗소리가 삼겹살 굽는 소리를 잠재운다.

수만 접시물에 빠져 죽는 소리네.(소주를 단숨에 들이킨다)

토중 3번씩이나 벼락을 맞고 말이야... 후유증으로 죽었으면 그쯤 봐줘야지.. 죽은 사람을 또 무덤까지 찾아가 때리냐! 거 신인지 운명인지 과했네..

(소주 잔을 물끄러미 한번 보고 마신다)

수만 어쩌다 3번이나 벼락을 맞았다냐?

-인서트

1차대전 영국과 독일군의 대치전선. 흐린 날씨의 낮.

말을 타고 이동하던 영국군 소령(월터 서머포드). 갑자기 번개가 말에게 내리치고 말과 소령은 땅에 뒹군다.

화식(E) 처음 번개를 맞은 건 전선에서 말을 타고 가다 그랬고..

-인서트

흐린 날씨의 낮. 친구와 조금 떨어져 강가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월터 서머포드. 갑자기 번개가 팔에 내리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놀란 친구 달려온다.

화식(E) 처음 맞은 번개 때문에 제대까지 했지. 그리고 어느 날 친구랑 낚시를

갔는데... 또 번개를 맞았지.

-인서트

맑고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공원을 걷고 있는 월터 서머포드...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내리치며 몸통에 맞는데, 그대로 기절한다.

화식(E) 또 몇 년 후.. 이번엔 날씨도 무척 맑은 날이었는데.. 공원을 산책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지.. 이번에도 죽지는 않았는데.. 타격이 심했나봐.. 2년후에 후유증으로 죽었단 말이야.

토중(E) 운명의 수작이구만. 허..

수만(E) 그리고 나서 묘지에 묻혔는데.. 또 벼락이 쫒아와서.. 비석하고 남은 해골 도 박살이 났단 말이지?

현재.

화식 그렇지.. 살아서 3번. 죽어서 1번.

사람이 평생 1번 벼락맞을 확률이.. 대충 30만분의 1정도 되거든.. (머리 속으로 계산하며) 그러니까 3번 맞을려면 3경분의 1.. 4번 맞을려면....

(친구들의 멍한 표정 보고 말을 멈춘다)

수만,토중 (골치 아프다는 듯 손까지 저으며) 화식아!

수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 아냐!

화식 (미소) 그렇지.

화식 (소주 한잔 차분히 마시고) 그런데.. 세상에는 확률로는 일어날 수 없을만 한 일들이.. 꽤 일어난단 말이야...

(친구들을 둘러보며) 벼락을 7번 맞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수만,토중 (멍.. 소주를 벌컥 들이킨다)

화식 (웃으며) 우리가 안맞았으니 다행이지 머..

갑자기 창 밖에서 번개불이 번쩍이더니, 잠시 후 천둥소리 크게 울리는데.

술집의 모든 손님들 일순간 놀란다.

수만과 토중, 젓가락을 놓치고 앉은 의자 흔들거리고.

화식, 많이 놀란 표정이지만,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미동도 않는다.

이내 술집안의 모든 손님들,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수만 (손을 번쩍 들고) 여기 소주 좀 더 주세요~

(흥 나서) 오늘 술맛 난다. 달려보까~

세 친구 모두 즐겁게 술잔을 주고받고, 비오는 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의 흥취로 무르익어간다.

<시간 경과>

손님들이 거의 다 떠난 술집, 세 친구는 꾸벅꾸벅 자리에서 졸고 있다. 불편한 자세지만 표정만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듯.

수만, 자기 움직임에 놀라 탁자 위 술병을 치며 눈을 번쩍 뜨고. 수만이 만들어내는 요란한 소리에 놀라, 화식과 토중도 눈을 번쩍 뜬다.

-타이틀 자막- **<우연히 고향에 잠들다>**

**s#3. (세 친구들이 사는 동네) 산 중턱 약수터-정상/아침-낮**

일요일 이른 아침, 맑게 개인 날씨. 동네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는, 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산 위쪽 길로 올라가고, 멈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로, 활기차다.

수만 (살짝 솟은 아침해를 바라보며) 햐~ 비오는 밤 소주맛 좋고.. 해뜨는 아침 산공기 좋다~

토중 술자리선 젤 먼저 꼬꾸라지는 녀석이..(미소)

수만 산에서는 내가 한 마리의 표범이잖냐아..(순간 날카로운 표범의 눈매로)

화식 그래. 그건.. 표범이 뭐하러 이런 동산에 오겠냐만..(미소)

셋이 농을 던지며, 웃고 떠드는 동안. 어느 할아버지(실향민노인,80대), 약수터로 올라와 슬그머니 세 친구에게 다가온다.

실향민노인 아직도 안갔어?

화식 (웃으며) 오셨어요. 헤헤. 인제 슬슬 올라가야죠.

토중 (냉정한 표정, 생깐다)

수만 (넉살맞게) 같이 올라가시죠. 저희가 말동무도 해드릴게요..

실향민노인 이런.. 철딱서니들...(흘낏 쳐다보고는 산위쪽으로 올라간다)

<시간 경과>

산을 오르고 있는 세 친구. 조금 앞에 실향민노인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

<시간 경과>

세 친구와 실향민노인, 중간 쉼터에 앉아 쉬고 있다.

화식 좀 더 있다가 내려갈려고요..

수만 고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토중 할아버지는 못가지만 저희는 아직 안가는 겁니다.

실향민노인 (토중을 빤히 보며) 그래. 나는 못간다!

토중 (괜히 먼 곳을 보며) 언젠가 가실 수도 있죠 뭐. 세상 일이란게 다...(말하 려다 나이지긋한 할아버지 모습 보고 그만두는)

화식 할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자주 산에도 오르시고.. 고향에 돌아가실 확 률이...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통일이 빨리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수 십년간 분단상태가 계속되왔다고 또! 수십년간 그럴거라는건.. 충분한 근 거가 없어요.

수만 야. 너 또 여서 논문 쓰냐.. 니 박사논문은 20년이 다되가는데 제출을 못 하면서.. 엄한데서 말로 쓰고 그러냐야~

실향민노인 (웅변조로) 이봐라. 자네들!

나도 그날 집을 떠날 때는 오늘까지 못 돌아갈 줄은 몰랐다. 밭에 심오논 거 얼른 와서 돌봐야겠단 마음만 바빴지.

있을 때 잘해야 하는거시다, 세상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야. 뭐든지!(눈빛은 촉촉해지고, 귀향을 포기한 마음, 여전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

**s#4. 등산로 입구-전원주택단지/낮**

세 친구와 실향민노인, 등산로 입구로 나오면.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가 펼쳐지고, 도로 옆엔 배수로와 인도가 있고, 그 안쪽에는 고급스런 전원주택단지가 도로를 따라 펼쳐진다.

걸어내려오는 세 친구와 실향민노인.

실향민노인 (온화하게) 고향에 가서 살고 싶대매.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가보게들.

화식 60 되기 전에는 갈려구요.

수만 (억울한 듯) 저희도 당장 가고 싶죠.. 허지만 애들 대학 보낼라면 좀 더 버티고 있어야죠!

실향민노인 (이렇다,저렇다 뭐라 해줄 말이 없다) 으흠..

토중 (온화하게) 할아버지. 저희는 고향에 미친 특이한 종자들이니까.. 곧 가서 멋지게 살겁니다.. 할아버지도 기운내세요.. 잘 되실겁니다..

실향민노인 (간만에 살가운 토중의 말투가 싫지 않은) 잘 되긴 뭘...

**s#5. (토중의 고향 동네)주택가-(토중의 고향집)주택 앞/낮**

전원주택단지가 끝나고, 도로 옆으로 나무숲이 이어진다. 넷은, 평온하게.. 걷는다.

나무숲을 지나자,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모인 주택가가 보이는데, 주택들은 단층이고 마당이 있다. 조금 걷자 꽤 넓은 마당이 있는 단층으로 된 낡은 시골집(토중의 고향집) 이 보인다. 담장이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허술하다. 마당엔, 여기저기 방치된 가구와 잡다한 물건들과 최근에 설치한 듯한 조립식 판넬 창고가 떡 버티고 있어 좁아보인다. 집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다

집주인 남자(동네형)가 낡은 철대문에 새 손잡이를 달고 있다. 넷은 가까이 걸어간다.

동네형 (땀을 흘리며 혼자) 이거 뭐 고칠 데가 한두군데야 말이지.

토중 (동네형 앞에 걸음을 멈추고) 아이고. 문이 아주 새문이 되겠네요.

동네형 (토중 쳐다보며) 손잡이 바꾼다고 새문이 되냐? 확 다 허물고 2층으로 올 려버릴까 보다.

토중 (딴 데 보며 작은 소리로) 돈이 엄청 들 텐데...

동네형 !

토중 (동네형 보며 넉살스럽게) 좋죠. 공기 좋고, 산 좋고, 좀 나가면 지하철 있고... 서울에 이런 동네가 또 어딨겠어요~

동네형 (쳐다보며) 어휴. 너... 재밌냐?

로또 맞아서 5층으로 지을란다!

토중 (다정하게) 형님. 나중에 제가 한잔 살게요.(실실 웃으며 걸음을 옮긴다)

동네형 ...

넷은 다시 걷는데

수만 너는 이 집이 허름한게 글케 좋냐? 집 좀 고칠라고 하면 꼭 말리드라.

아무리 고향집이라도 나중에 와서 살려면 좀 편리한게 낫지...

저번에 저형 돈 좀 생겼다고.. 담장을 새로 싹 쌓을라다가.. 해외여행 갔다왔지?

토중 (웃으며) 그랬지.

수만 토중이가 술 한잔 사주면서 괜히 바람 넣었잖아..

화식 왜?

토중 고쳐도.. 나중에 내가 고쳐 살거다... 내 손으로! 고칠거다..

수만,화식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인다)

실향민노인 (놀고 있네!)

**s#6. (토중의 현재 집)빌라 앞-골목/낮**

토중 고향집에서 두 블록가량 떨어진, 현재 토중의 빌라.

토중은 수만, 화식 보며 “가라”하고 빌라 계단으로 올라간다. 수만과 화식은, 손짓 인사하고 서로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간다.

**s#7. 생수공장 생산라인-사무실/낮**

생수들이 생산라인을 따라 이동하다 박스에 포장되고 있다. 작업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치고, 흰 면장갑을 낀 수만.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직원 몇 명이 대기중이다.

수만, 박스에 담긴 생수병 하나를 집어들어, 뚜껑을 따서 조금 마신다.

수만 (와인처럼 음미하며 상상하듯) 음.. 경치 좋은 호텔 객실에서.. 식후 입가 심하기 딱 맞는.. 개운함이 담겼어~(만족의 미소)

(갑작스럽지만 우아하게) 오케~~~이~

대기중이던 직원들 본격적으로 박스 포장하고 옮긴다.

수만, 미소지으며 생산라인 한 켠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간다.

사무실 안.

의자에 앉은 수만, 핸드폰이 울린다.

수만 (핸드폰 받고) 어. 토중아.. 안바쁘냐. 웬일로 이시간에..

(잠시 듣더니) 뭐? (천천히 더듬더듬) 그윽하지만 담백하고.. 실용적인 느 낌이 나는 청화백자.. 태토에 어울릴만한 물을..(숨고르고) 추천해달라고?

(멍하게)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생각좀 해보자. 내가 워러소믈뤼에 아니냐아..

(정신차리고) 근데 너 흙만 관리하더니 인제 물도 맡었냐? 이러다 불담당 까지 하면.. 혼자 도자기를 굽겄다야. 허허허.

**s#8. 중학교 과학실험실/낮**

칠판에는 ‘**3. 물질의 연소**’ 씌여 있고, 학생들 둘러앉은 각 탁자에는 알콜램프에 불이 붙어 있다.

학생들에게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다량의 열을 내며 동시에 빛을 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름이나 나무만 있다고 불이 붙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열심히 설명하는데.

주머니속 핸드폰의 문자알림 진동. 무시한다. 2번째 알림 진동. 또 무시. 세 번째 알림 진동. 수업 중지하고 문자 내용 확인하는 화식.

-인서트. 문자화면

‘SOS. 최박사!!’

‘토중이가 나한테 물을 알려달래? 근데..’

‘오늘 저녁에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거기서 7시. 오케이?’

문자내용 확인하고 즉시 답장하는 화식.

-인서트. 문자화면

‘물론 오케이~’

다시 설명을 이어가는 화식.

**s#9. (#2의)동네술집/저녁**

마주앉은 화식과 수만.

수만 내가 사람 마시는 물을 감별하지..  흙이 마시는지.. 헤엄을 치는지 하는 물을 아는건 아닌데 말이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면, 토중이가 두고 두고 놀릴텐데 말야.

화식 토중이도 급하니까 그랬겠지. 이번에 신제품 자기를 개발하다고 회사에 난리가 났대잖아.

수만 (기대하며) 뭐 좋은 생각 없냐?

화식 (잠시 생각하고) 도자기란건 흙과 물이 섞여서 반죽을 하고 불에 굽는거 잖아?

수만 그래.

화식 木火土金水(목화토금수)... 土剋水(토극수).火生土(화생토).水剋火(수극화)

수만 (먼소리여)

화식 木火土金水(목화토금수)! 세상 모든 물질은 이 다섯가지 기본 물질.. 五行 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순환한다.

土剋水(토극수)! 흙은 물을 지배하고 제어한다.

火生土(화생토)!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의 기운을 강화시킨다.

水剋火(수극화)! 물은 불을 지배하고 제어한다. 물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흙을..만들고 강화시키는 그 불을...

수만 (볼멘소리) 알아듣게 해봐 좀...

화식 흙과 물을 섞으면.. 흙의 성질이 물의 성질을 이기고 포용한단 말야.

그리고.. 이렇게 물의 성질을 포용한 흙을 불에 구우면.. 흙의 성질은

           더욱 강화되겠지? 그런데.. 흙과 섞일 때는 흙에 종속되는 물이.. 불을

만나게 되면 그 불을 제어해서 약화시킨단 말이야...

수만 어허! 알아듣게 하래두~

화식 (아랑곳 않고) 흙은 물과 섞이면서 형태를 만들지만 본래 흙의 성질을

대체로 간직하겠지.. 가마불은 흙의 기운을 강화시키고.. 그런데.. 가마불 에 구워지면서 흙과 섞인 물이.. 불의 기운을 약화시킬거란 말이야..

그리고.. 가마불은 흙에 섞인 물에 비해 엄청난 강도라.. 거의 약해지진 않고.. 물에 의해 살~짝 미묘하게 온화해지는 정도겠군...

(탁자를 탁 치며) 결국! 도자기가 구워지면 흙의 성질은 가마불에 의해

훨~씬 강화되고, 물에 의해 미~묘하게 온화해진다!!

수만 어쩌란겨어?

화식 (차분하게) 수만아... 흙맛을 봐라.

수만 (바보의 표정) ??

화식 먼저 흙맛을 알면.. 어떤 물이 더해져야 미묘하게 필요한 차이를 만들지.. 쉽게 알 수 있을거 아냐?

아마 넌 흙맛만 구분하게 되면.. 어떤 물이 필요할지는.. 상상만으로 알아 낼거야!

수만 (떨떠름) 그럴 듯 하네. 근데 흙을 먹으면 안되는거 아니냐?

화식 (담담하게) 구워먹어야지.

수만 맛없지 않냐?

화식 먹어봐야 알지.

수만 (어쨌든, 수긍은 된다. 끄덕끄덕) 역시 물리박사가 될만해..

(놀리듯) 근데.. 얼렁 논문좀 완성하지? 너 교사 하고 얼마 안되서 박사

시작했잖아? 방학도 빵빵한데 여태 뭐했냐?

논문이 어디서 행방불명이라도 된거냐?

화식 (멋쩍은 웃음) 나의 논문은 그리 간단치가 않단 말이지..

수만 주제가 뭐야?? 들어도 맨날 헷갈리네.

화식 ‘물리적 세계에서 우연의 확률과 음양오행설의 우주관’.

...생각해둔 제목이야..

수만 (끄덕끄덕) 빨리 써.(할말이 없다)

**s#10. 수만의 서울집 거실/저녁**

초등(10),중학생 두 아들과 수만이 한가로이 앉아 과일 먹으며 TV 드라마를 본다.

고등학생 딸이 부엌에서 물 한잔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조금 뒤, 대학생 딸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며 ‘다녀왔습니다’ 하는.

수만 (반가운 미소로 딸 보며) 늦었네.

대학생딸 쉴게요. (자기 방에 들어간다)

수만 (들어가는 것 보며) 그래 힘들지? 쉬어..

수만이 TV채널을 돌리니 뉴스가 나오는데,

앵커(TV) 남한강 지류중 충평시의 상류 지역에, 현재 대형 댐이 건설중입니다. 공 사가 시작한지는 1년이 채 안됐지만, 혁신적인 공법이 적용되어 3년 후에 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댐이 완성되면 상류 지천군의 많은 지역 이 물에 잠기겠고, 특히 청월면 지역은 면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 다고 합니다.

화식 (TV앞으로 빨려들 듯 다가가서 넋을 잃고 본다)

앵커(TV)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충평시 근방에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가

조성되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만 (눈 풀려 중얼) 메기가 살겠네.

(잠시 후 큰소리로) 안돼!!

거실의 두 아들과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두 딸, 수만을 빤히 쳐다본다.

수만 (손 번쩍 들고 절규) 내 집이여어~~!! (외침소리 점점 작아진다)

                                                                F.O

**s#11. 수만네 집/오전**

집 앞에 이삿짐을 싣고 대기주인 용달차. 수만 혼자 생활할 가재도구만 챙겨 단촐한 이삿짐. 부인과 두 아들(중학생,초등학생), 차에 오르려는 수만을 보며 서 있다.

수만 (부인보며) 나도 인제 요리사 다 됐어. 자주 안와도 원망 안하니까 애들 잘 챙겨줘..

수만부인 (흘겨보며) 그깟 땅 뭐하러 개간을 해. 고향 내려가자마자 한다는 일이..

물에 잠길 땅 개간하는거야?

(얼굴 풀어지며) 쉬엄 쉬엄 하던가..

수만 하하하. 알겠습니다.

(아이들 쓰다듬으며) 방학때 놀러와. (해맑게) 우리 신나게 놀자!

중학생아들 (담담하지만 좋아하는 표정)

초등생아들 (방방 뛰며) 이야~ 방학! 방학!

수만, 운전석 옆에 올라타고, 차가 출발하면 식구들 보며 손흔든다.

부인, 체념한 듯 어설픈 미소, 아이들 마구 손흔든다.

**s#12. 토중의 고향집/낮**

토중, 낡은 대문(#4의) 있던 자리에 현대식 새 문을 직접 달고 있다.

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청소되고 정리된 모습이다.

마당엔, 조립식 창고와 널려있던 물품들이 모두 없어져서 널찍하다.

마당 한 쪽에 나무를 심기 위한 흙구덩이가 대여섯군데 파여 있다.

토중, 신이나서 어깨를 들썩이며 대문을 달고 있는데,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오라 하여도~ 내 쉴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화식, 골목에서 걸어온다.

화식 (헛웃음) 허허. 니집 되니까 아주 새집을 만드는구나. 집 좋다~

토중 (보며) 하하하. 부럽지?

화식 그래.

토중 부러우면 이사가던가..

화식 (먼 곳을 보며) 약올리기는. 3년이다 3년. (결연하게) 나도 교직 20년만 딱 채우면 교장을 시켜준대도 고향으로 떠난다.

토중 (일을 멈추고) 그래. 연금은 받아야지. 산골이 물에 잠길 일도 없잖아.

화식 그렇지. 거 참. 수만이 고향도 어쩌다 그렇게 됐냐..

너는 꼭 니 태어나 살던 집이라고..오긴 오는구나..

(집 안 살피며) 제수씨하고 아들은?

토중 하도 내가 여기저기 쑤셔대서 정신없단다. 친정에 같이 갔다.

화식 (웃으며) 좋냐?

토중 음. 나쁘지 않지.(미소)

수만이는 혼자 강가에서 잘 지내는갑다.

화식 (웃으며) 너만큼 정신없이 여기저기 일을 벌이나 보더라. 신났지뭐.

(마당 흙구덩이들 살피며) 저것들은 머냐?

토중 어. 내가 이 집을 꼭 왔어야만 하는 이유라고나 할까.

화식 ?

토중 (흙구덩이들을 흐뭇하게 보며) 내 숲이다.

**s#13.  (수만의 고향)강변마을-구릉/오후**

강 상류 주변에 있는 수만 고향마을. 강변에는 논과 밭이 있고, 그 뒤편에 시골집 열 댓 채 있고, 집들은 모두 단층이다.

마을 끄트머리에 집들 높이만한 구릉이 있는데, 경작되지 않고 있는 척박한 땅이다.

- 산기슭에서 손수레에 흙을 퍼서 싣는 수만 (밀집모자 쓰고)

- 힘들게 좁은 길 따라 손수레 끄는 수만

- 구릉 한쪽에 손수레의 흙을 들어붓는 수만

쌓인 흙의 양이 보잘 것 없다.

강가의 밭 사이로 트랙터를 몰고 가던 강가할아버지(60후반 남), 멈추고 수만이 흙을 붓는 모습을 본다.

강가할아버지 (어이없는 듯) 개고생을 사서 허네. 쯧쯧.. 어릴때도 정신 없더만

아예 정신줄을 놓고 돌아왔어. 물에 잠길 데를 먼 개간을 헌디야아.

수만 (트랙터를 발견하고 큰소리로 힘차게) 안녕하세요. 형니임!

강가할아버지 (흠칫하며) 그려! 워쨌든 수고헌다! (하며 얼른 출발한다)

수만 (활짝 웃으며) 네~ 형니임~ 수고하세유~ (하며 손까지 흔든다)

땅에 부은 흙을 고르게 펴서 정성껏 다지는 수만

화식, 마을 어귀에서 수만네 집-구릉 근처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생뚱맞게 구릉위를 개간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쳐다본다. 구릉위 수만쪽으로 가는 화식.

화식 (가까이 다가가가는데 눈치 못채는 수만) 수만아~

수만 (고개 들어 놀라며) 화식아! (반가운 미소가 가득하다)

**s#14. 수만의 고향집 마당/해질녘-밤**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평상, 밥 두그릇, 김치, 막걸리 놓여 있다. 평상 옆 드럼통 위에 얹혀진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국자로 젓고 있는 수만.

화식은 평상에 앉아 그런 수만을 여유롭게 바라본다.

수만 (국자로 떠서 맛보며) 키야~ 강물 좋으니~ 메기, 송어, 연어도 좋구나. 아 참 연어는 지금 없지.. 솜씨가 또 좋구나~

바라보는 화식, 그렇게 좋은가 싶어 웃는다. 수만, 큰 사발에 매운탕을 담아 평상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는다.

수만 자. 남한강표 매운탕 한번 잡솨바~

막걸리를 서로 채워주고는 단숨에 쭈욱 들이키고, 매운탕을 떠 먹는다.

화식 캬~ 좋다~

수만 좋지~

<시간 경과>

해는 완전히 지고, 수만의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달빛만이, 은은하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화식 공사를 하고 있다더니 개간을 하고 있었냐?

수만 글지. 내가 원래 땅 일구는걸 좋아하잖냐. 물맛을 보고 살았긴 해도.

내가 아주!  흙맛이 기가 막힌 땅으로 바꿔놓을라 그런다.

화식 손수레로?

수만 그러엄. 아직 3년이 남았어. 내년까지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멍..) 음.. 뭘 심지?.. 감자? 옥수수? 배추?..

뭐든 심으면 되고!

화식 그 다음 해에는?

수만 또 심지?

화식 그 해엔 떠나야잖아? 어쨌든.. 다 물에 잠길텐데...

수만 (담담히) 그러겠지.

화식 (뚜렷히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표정)

수만 너도 알지?

수만과 화식, 서로 보며 미소 짓는다.

수만 고향에서 좋은 땅 만들고, 좋은 곡식 일구는 농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된거야..

화식 그래..

두 친구는 막걸리를 주고받고, 이제 매운탕 가마솥을 통째로 평상위에 올린채 먹는다.

카메라 위쪽으로 이동하면, 어둑한 하늘을 지나 달이 뜬 하늘이 보인다.

                                                               F.O

**s#15. (화식의 고향)숲/봄, 낮**

F.I  -자막- <**3년 후**>

산 중턱 골짜기에 위치한 화식의 고향마을. 산의 정남쪽에 자리잡아 볕이 환하다.

부근의 숲에서 좌우를 살피며 산을 오르고 있는 화식. 장갑끼고, 모자쓰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약초꾼의 모습이다.

- 죽어 쓰러진 참나무에 달린 표고버섯 열댓송이를 조심히 채취해 배낭에 담는 화식

- 주변을 살피며 산을 오르고 있는 화식

- 화식, 호미로 흙을 파내자 굵은 칡의 몸통이 조금 보이는데

- 화식, 더욱 깊고, 넓게 파내자 어른 팔뚝만한 칡뿌리 보인다.

- 배낭에 팔뚝만한 칡뿌리 2개를 담는 화식

화식 (땀을 닦으며 흐뭇하게) 오늘은 이만하면 됐구나.

**s#16. (화식의 고향)산골집 마당-본채 안방 안-마루/낮**

담장은 없고 싸리문만 있는 화식의 산골 초가집. 허름하지만 깨끗이 정리되고 청소 되있다. 허름한 초가 옆, 황토벽돌로 지은 아담한 별채, 처마와 굴뚝이 있다.

초가 본채 마루에는, 표고와 잘게 썰어 놓은 칡이 펼쳐져 있다. 마당에는, 크고 작은 장독대가 늘어서 있다.

화식, 초가 본채 안방문 열고 들어가면,

한쪽 나무진열장에, 15리터 유리병 4개, 5리터 유리병 4개가 나란히 놓여있는데.

15리터 유리병 하나에 5분의 1쯤 여러 가지 약초가 섞인(쑥,당귀,두릎,곰보등 봄약초)효소액이 담겨있고, 나머지 병들은 비어있다.

화식 (유리병들 보며) 봄, 여름, 가을, 겨울..(잠시 생각) 봄에.. 쑥, 당귀, 두릅, 곰보.. 여름 되면.. 죽순, 질경이, 쇠비름, 솔방울.. 가을 오면.. 천문동,

도라지, 둥글레, 금전초.. 겨울엔.. 오가피, 우슬, 생지황, 칡.. 그래! 칡은 추울때가 좋지..

-인서트.(회상)

초가 본채 안방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어린 화식(10세). 방문 열고 화식의 아버지(50대 초반) 들어오는데, 문 밖에는 눈이 내린다. 커다란 칡뿌리 2,3개가 담긴 주머니를 내려놓는 아버지.

잠시후, 부엌문을 열고,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는 화식의 어머니(40대 후반). 화식에게 탕약을 떠먹인다.

현재.

수만 또 캐야겠네~

(유리병들 만지작 거리며 도사 말하듯)불로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로다.

화식 (방을 나오며) 연금도 나오고.. 약초도 나오고.. (창을 하듯) 만물이 소생 허는 봄이로세~

**s#17. (화식의 고향집)황토별채 안/같은날 낮**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편안히 앉아있는 화식. 한쪽 벽에 나무 판자로 직접 만든듯한 책장에, 책들이 빼곡한데. 방안 살림중 단연 눈에 띈다.

전화를 하고 있는 화식.

화식 날씨도 좋은데.. 잘 되가냐?

-인서트

개간중인 밭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씨를 뿌리고 있는 수만.

구릉 위 밭 높이는 이전(#13)에 비해 50cm쯤 높아져, 마을의 집들보다 확연히 높다.

수만 (허리 펴고 전화 받으며) 물론이지.. 고구마, 옥수수, 파는 심었고.. 호박, 고추, 가지는 심고 있다

화식(F) 작년처럼 아무 때나 막 심는건 아니지? 봄도 오기 전에 콩 심었다가

다 죽었잖아.

수만 하하. 이제 나도 꽤 늘었어. 올 초에 군청서 하는 교육도 받았고 말야. 내 가 올해엔 좋은걸로 너한테도 보내주마. 걱정마라.

너도 산골로 들어갔으니까 나물이라도 팍팍 뜯어다가 보내봐아. 나물이 지천으로 널렸잖아.

다시 화식의 황토별채 안.

화식 그래.. 니 생전 보도 못한 자연버섯하고 칡 좀 보내마. 먹고 기운내서 농사 잘 지어봐라.. 올해가 마지막이잖아...

수만(F) (씩씩하게) 그래. 올해는 무조건 대풍년이다!

**s#18. 토중의 고향집 마당/봄, 낮**

(#12의 흙구덩이 자리에)소나무, 감나무 등 나무 대여섯 그루가 어른키 보다 좀 크게 자라있는 마당. 마당 중앙엔, 한 사람이 누울 만큼 공간에 흙만 덮여있다.

토중, 마당 중앙의 흙을 바라보고 있는데. 토중 부인(46), 현관문에서 나와 토중에게 걸어온다.

토중부인 (토중 보는 곳 함께 보며) 여기다 비치솔 하나 놓읍시다. (토중 한쪽팔에 팔짱끼며) 분위기도 좋은데 앉아서 커피도 마시게.

토중 (슬쩍 팔짱 빼며) 나올 때가 됬어요.

토중부인 (입을 삐죽이며) 벌써 3년이 지났거든. 대나문지 파뿌린지 땅에다 묻은지.

토중 (뒷짐 지며) 원래 그런 것이야. 대나무가 곧은 만큼 자리 잡기가 어려운거 라니까. 하지만! 한번 뻗으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쭉쭉 뻗어나오는 법이지.

우 후 죽 순 !

올 여름엔 당신보다 큰 대나무를 보게 될걸..

토중부인 (안믿기는, 소나무 보며) 대나무 동생 소나무가 훨 낫네..

(의아해하며) 동네 좋은 산에 나무들이 넘치는데 뭐하러 이러는거야?

토중 산에 있는 나무하고 집에 있는 나무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

토중부인 ?

토중 산에 있다는 것하고 내 집에 있다는 거야.

토중부인 (눈흘긴다)

토중 (나무들 바라보며 미소) 내집에 있으니 또 얼마나 다정해.

토중부인 (기가차며) 어이쿠.. 이러다 詩人되시겠어요?

토중 (소나무에게 다가가 만지며 시를 읖조리듯) 나만의 소나무야... 내게 푸르 름으로 와 주었구나...

토중부인 (입을 벌리며 쳐다보는)

토중 (마당 중앙 흙을 바라보며, 한층 고조되어) 너는 내게.. 곧디곧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세월을 단장하고 있더냐~?

**#19, 한강 이남 전경/여름, 오전**

높은 곳에서 바라본, 한강과 한강 남쪽 멀리까지 펼쳐진 모습. 맑은 날씨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점점 거세진다.

**#20. (수만의 고향마을 하류)청평시 상류쪽 댐건설현장/낮**

완성 직전의 거대한 댐. 남아있는 공사중 표지와 장비들.

쏟아지는 비와, 댐에서 방출되는 커다란 물줄기들.

**#21. (수만의 고향마을 상류)저수지 제방/낮**

강가할아버지(#13)와 면사무소 토목공무원(30대 남)이 저수지 제방의 허술해보이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둘은 우산을 쓰고 있다.

강가할아버지 오래되놔서 손봐야허지 않허겄나?

토목공무원 그렇긴 한데요. 예산이 안나옵니다. 올 여름 지나면 여기도 물에 푹 잠길텐데 고치라고 허나요?

강가할아버지 허긴. 앞날 창창한 큰 댐에 돈이 들지 인자 죽을 이런 둑에 새로 들겄남.

토목공무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지금껏 잘 버텨왔는데요.

강가할아버지 (웬지 불안, 말끝 흐리는) 그렇긴..한되...

거세지는 빗줄기. 불안한 표정으로 우산을 꼭 움켜쥐는 두사람.

**s#22. (수만의 고향마을)구릉 위 밭/낮**

옥수수, 오이, 고추, 가지 등의 파란 싹이 사방에 돋아 있다.

우의를 입고 (#13의)밀짚모자 쓴 수만, 이리저리 살피며 작물들에 묻은 흙을 털고 이랑을 정리하고 있다.

수만 (하늘 보며) 비가 제법 매섭네. 올해는 꼭.. 풍년이어야하는데..

카메라, 강으로 돌아 비추면, 크게 불어나진 않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힘차게 흐르는 강물.

**s#23. (토중의 고향 동네)체육공원/여름, 낮**

(#5의)전원주택단지와 토중의 고향동네 사이 숲이 있던 자리에 새로 조성된 체육공원.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토중과 동네형(#5). 두 사람 근처에서 노는 아이 둘(초등)

토중 그 많던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동네형 멀리 가진 않았지. (전원단지위쪽 숲을 올려다보며) 저 위로 갔어. 저기다 옮겨 심었단다.

토중 뭐하게?

동네형 8년 전인가.. 그 어디냐. 서면산에서 산사태 나서 아래 전원주택들이 파묻 히고 난리가 났었잖아.. 무섭긴 무섭나 보다..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도..

아주 요새를 만들어놨어..

토중 (체육공원 아래 자신의 동네 보며) 그럼 우리 동네는?

동네형 위에서 막음 됬지. 안그래?

토중 (웬지 불안하고, 불쾌하다)

동네형 배수로도 엄청 잘되있잖아.. 웬만한 비에는 끄떡없지!

토중 그럴까?(하며 산, 전원주택단지, 체육공원 그리고 자신의 동네를 차례로 훑어본다.)

둘의 앞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바닥의 흙 집어 토중의 방향 쪽에 있던 아이에게 던지는데. 토중의 얼굴 위로 뿌려지는 흙들.

정신없이 눈을 비비고 기침을 해대는 토중. 멀뚱히 쳐다만 보는 동네형과 아이들.

**s#24. (화식의 고향 산골마을의)아랫마을 버스정류장/여름, 낮**

아주머니 두분과 앉아 버스 기다리는 화식.

“비오고나면 꼭 설사가 나오고 그래”, “그러게말여 우리집도 그랴” “아무래도 지하수 물이 문제같어” “어쩐댜. 지하수를 또 파야헐라나” 아주머니들 얘기 주고받는데,

아주머니들을 힐끗 한번 보나 얘기에 별 관심이 없는 화식.

**s#25. 읍내 버스터미널/같은날 낮**

- 창구에서 표를 사는 화식

- 터미널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화식

**s#26. 수만의 고향마을 강가/같은날 오후**

수만, 토중, 화식이 강가에 앉아 강과 너머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

날씨는 맑고, 강물은 (#22.거센 흐름 비해) 잔잔하게 흐른다.

토중 이런 데를 묻어버리다니..

수만 (아쉬워하며 강 위쪽-마을-강 아래 멀리, 훑어본다)

화식 올 가을이지?

수만 (담담하게) 댐은 완성됐단다. 사람들이 떠날 일만 남았지머.

마을을 둘러 보면 두어집 외엔 사람이 살지 않는 듯 지저분하고 휑한 집들.

하지만, 논과 밭은 곡식과 야채들이 푸르게 잘 자라고 있는데.

수만의 구릉 위 밭, 가장 짙고 무성하다.

토중 (수만의 밭 보며) 풍년이겠네..

화식 언제까지 떠나라고 안하던?

수만 진작 떠나라고 했지.

(하늘 보며) 내가 그랬어.. 나는 하루전에만 알려줘도 된다고..

물 가두기 전에 말야.. 저것들도 데리구 가야지..(구릉 위 보는)

(토중, 화식 보며) 저중 몇 광주리는 니들 입에 들어갈거다.(씨익-)

토중,화식 그래. 고맙다 (미소)

토중 (수만의 밭을 보는데, 멀리서도 말뚝에 박힌 푯말이 도드라져 보이는)   말뚝에 푯말은 머냐?

수만 응. 잘 보이지? 등기는 안되니까.. 저걸로 대신했지머. 하하하

화식 튼튼히도 해놨다..

수만, 일어나 강으로 걸어가서, 물속에 놓은 통발을 들어올린다.

열 마리정도 실한 물고기들이 들었는데, 힘차게 팔딱팔딱 뛴다. 자기들 세상이 이제 오는 것을 아는 듯이.

**s#27. 수만의 고향집 마당/밤**

어둑한 밤, 집의 전등은 모두 꺼져있고.

평상 옆 드럼통화로에서 타는 장작불이 세 친구를 비춘다.

평상에는, 상위에 싱싱한 야채들이 푸짐하고, 토중과 화식은 휴대용버너위 후라이팬에 파전과 호박전을 부치고 있다. 드럼통화로 위 가마솥에 매운탕 끓이는 수만.(이전 씬들과 같은 밀짚모자 쓰고 있는)

<시간경과>

평상에 앉아 사발에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건배를 하고 마시는 세 친구.

수만 (호박전을 집어 음미하듯 천천히 먹으며) 음. 고소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A급이구만. (음미 끝나고 우왁스럽게 먹는다)

토중 (파전 집어서, 튀어나온 파들을 나무 조경하듯 가지런히 정리하며) 자태와 때깔이 가히.. 청화백자에 그려진 난초와 같구나.(맛있게 먹는다)

화식 (찬찬히 막걸리 마시고, 옛 선비처럼) 이 고장 물맛이 청명하고 그윽하기 그지 없구나.

세 친구는 서로 쳐다보며 웃고, 또 술잔을 들어 건배하는데, 하얀 막걸리 위로 달이 비추인다.

카메라, 돌아서 강을 비추면. 강물에 희미하게 떠 있는 달.

카메라, 서서히 하늘로 이동하면, 두둥실 밝은 보름달.

보름달 클로즈업 하고,

F.O

**s#28. (수만의 고향마을)강가할아버지의 집/‘대폭우’ 당일 아침**

강가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 안방문을 반쯤 열고 거세게 쏟아지는 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강가할아버지 (걱정스럽게) 진작 떠났어야 했던 거신감?

강가할머니 (담담하게) 기다려 보자구유.. 언젠가 그치것쥬.. 그때 가면 되는거 아니유...

**s#29. (화식의 고향집)황토별채 안-마당/같은날, 이른 아침**

TV 특보뉴스 보고 있는 화식. 창 밖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TV에서 흘러나오는, 거센 빗소리들이 섞여 몹시 요란하다.

TV화면에는,

도심지 주택가 골목, 우의를 입은 여성리포터. 발목까지 차오른 물, 거센 비와 바람에 힘겹게 몸을 가누며 말을 하고 있다.

현장리포터(TV) 백년만의 폭우가.. 이른 아침부터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전국에 쏟아진 비로 곳곳에 산사태와 제방유실이 발생했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서울시내 주택가..입니 다만..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순간 마이 크소리 안들리고 입모양만-‘서울 석촌동에서 TBC뉴스 최미나였습 니다’)

이어서 방송국 뉴스특보의 남성앵커, 화면에 나타나는데.

특보앵커(TV) (잠시 당황)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조금전 백년만의

폭우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8년전.. 백년만의 폭우가 내렸고.. 오늘 폭우는 이미 300미리가량 일강우량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백년만의 폭우의 거의 두배, 두배!(얼빠진)...

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오늘 저녁 뉴스보도를 통해 알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TV를 끄고 황토별채 밖으로 나와 처마 밑에 선다. 안에서 들리던 것보다 훨씬 큰, 엄청난 대폭우의 소리가 가득하다.

마당에는, 뚜껑들이 닫힌 장독대들 위에 큰 비닐 하나가 덮여 있다.

비로 온통 뒤덮인 세상, 지금은 무엇도 비를 이겨낼 수 없을 듯한.

**#30. 화식의 고향집 마당/(전씬에 이어져) 오후**

빗줄기가 평범하다. 겁나지 않게 내리고 있는 비.

황토별채의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31. 화식의 고향집 황토별채 안/(전씬에 이어져) 밤**

탁자 위에 제본이 된 논문-‘**석사학위논문**’이며, 제목은 ‘**물리적 우연의 확률**’, 제출자는 ‘**무극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2000년 최화식**’-이 놓여 있다.

화식, 탁자 앞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다.

화식 별일 없지?

화식부인(F) 오랜만에 바다 보러 왔는데... 찜질방에서 푹 쉬고 있지뭐. 거긴 어때?

화식 비는 엄청나게 왔는데.. 다 흘러내려갔어.. 산이라. 뉴스에선 폭우는 이제 끝났다고 하던데?

화식부인(F) 다행이다.. 토중씨 부인하고, 수만씨 부인은.. 동해바다 보인다고 여기도

좋다네. . 애들도 신나게 놀고.. 좀 있다 노래방에 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왁자지껄, 웃음, 아이들 장난치고 떠드는 소리들. 토중부인이 ‘서방님이 그리우면..

산으로 놀러가면 되겠네. 호호호’ 하는 소리도 들린다.

화식부인(F) 여보. 몸조심하고.. 또 전화할게.(끊기는)

전화 내려놓고, 탁자위 논문을 집어들어 페이지들을 들춰보는 화식.

화식 별 진전이 없었네..(잠시 생각)... 백년만의 비.. 8년만에 또 그 두배...

(눈을 빛내며) 그래. 폭우! 대폭우! 대재난!.. 극히 우연적인.. 우연과도

같은!.. (미소지으며) 이제 박사논문 완성할 수 있겠는데...

논문을 덮고, 갑자기 몰려오는 피로에 기지개를 쭉 펴는 화식.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다. 눈을 감는다.

갑자기 천둥소리 들리고. 눈을 번쩍 뜨는 화식.

무거운 눈꺼풀 못이기고, 이내 눈이 감기며 잠에 빠져드는 화식.

**S#32. 화식의 고향집 마당-마을어귀/‘대폭우’ 다음날 아침**

맑은 하늘과 뜨거운 기운이 감도는 여름날 아침이다.

마을을 품고 있는 산은, 폭우로 더욱 푸르고 싱그럽다.

- 마당의 장독들 위에 덮어두었던 비닐을 걷는 화식.

- 마당의 물 흐르는 길(배수로 역할 하는) 중간을 막은 흙더미를 삽으로 치우는 화식

- 마당에서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짝 미소짓는 화식.

- 긴팔 셔츠, 등산모자, 장갑에, 배낭을 짊어지고 싸리대문을 나서는 화식.

- 마을 어귀에 있는 묘지를 지나 마을을 벗어나는 화식.

**s#33. 토중의 고향집/같은날 아침**

도로와 도로옆에 있는 토중집, 그리고 부근의 집들.

모두 단층인 이 집들은 흙더미에 파묻혀, 지붕 혹은 굴뚝의 일부만이 드러나 있다.

난장판 한켠에 서 있는 앰뷸런스와 소방차. 여기저기 수십명의 소방관, 군인, 경찰, 인부들이 삽으로 땅을 파고, 손으로 흙더미를 헤치고 있다.

토중의 고향집 마당에 있던 나무들은, 위쪽 일부분만 흙위로 보이는데. 대나무를 심은 중앙을 중심으로 쓰러져 엉켜있다.

군인 몇 명(하사관, 사병1외 사병들), 집 현관쪽을 삽으로 파고 있는데. 현관문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 있고, 현관문 옆 건물부위는 여전히 흙에 깊게 파묻혀있다.

하사관 (현관문틈에 얼굴을 들이대고 들여다보며) 집안에도 흙이 다 들어갔네..

쉽지 않겠는데...

사병1 사람이 있어도 압사했겠는데요?

하사관 그래도 하는데까진 해봐야지..

**S#34. 수만의 고향마을-고향집/(하루전) ‘대폭우’ 당일 아침**

마을의 집들, 모두 물에 잠겨있는데. 그 위로 여전히 쏟아지는 엄청난 폭우

수만의 구릉위 밭이 있던 곳엔, 나무말뚝의 맨 위쪽의 나무푯말만 물위로 나와있는데, ‘강수만의 꿈의밭’이란 글씨가 큼직하게 써있다. 수만이 항상 쓰던 밀짚모자는 나무푯말 저 아래쪽에서 둥둥 떠내려 간다.

**s#35. (수만의 고향마을 상류)저수지 제방/같은 시각**

(#21)처참히 무너진 제방. 엄청난 양의 물이 아래로 쏟아진다. 그 흐름에 끝없이 물을 공급하고 있는 폭우.

**s#36. 화식 고향마을 위쪽 산길/(#32에 이어져) ‘대폭우’ 다음날 오전**

여유롭게 산길을 걷는 화식. 오랜만의 햇빛과 산행에 살짝 들떠있다.

산길 걷던 화식, 잠시 주변 두리번거리며 약초가 있을만한 지대를 가늠해본다.

이내, 나무와 풀이 많이 난 위쪽 방향으로 헤치고 올라간다.

부근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쳐다보고, 그쪽으로 걸음 옮긴다.

가까이 가보면, 산딸기가 꽤 열려있는데. 한 개 맛을 보고는 미소 짓는다.

배낭에서 도시락 빈통을 꺼내어 산딸기들을 담는다.

<시간 경과>

숲속을 헤치며 오르는 화식 앞에, 바위가 보인다.

바위 아래 땅은 부근 땅보다 살짝 패이고 더 촉촉해보이는데. 키가 50cm도 안되는 작고 가녀린 나무 한그루(기울어진 나무)가 땅에 심어져있다. 다른 나무들과 달리, 옆으로 많이 기울어 자라고 있는.

화식, 살짝 패인 그 땅을 밟고 바위 위에 걸터앉는다. 배낭에서 산딸기 담은 도시락 꺼내 뚜껑을 연다.

화식 (산딸기 먹으며) 수만이, 토중이도 좋아할텐데..

(쓸쓸하게) 나혼자.. 먹어야겠네...(다 먹어 치운다. 혼자만의 운명처럼)

도시락통을 배낭에 넣고, 산 아래를 찬찬히 살피더니, 바위아래 땅으로 폴짝 뛴다.

카메라, 밑에서 하늘위로 비추면,

맑은 하늘과 나무숲이 보이며, ‘으아악’ 화식의 비명소리 동시에 들린다.

화식, 갈라진 흙틈사이로 겨드랑이까지 빠진채, 주변 흙과 무엇이든지 잡고 버티려 발버둥치고 안간힘을 쓴다.

흙틈 바로 옆, 힘겹게 땅에 박힌 ‘기울어진 나무’를 꼭 움켜쥐는데. 나무가 화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뽑히며, 나무와 화식은 화면에서 사라진다.

카메라, 옆에서 계속 비추면, 꺼진 땅 쪽에서 2~3초간 계속, ‘으아악’ ‘우와아’ ’크아아’ 소리가 들리다 멈춘다. 수십미터를, 부딪히고 긁히며 땅속으로 빨려들어간 것이다.

**s#37. (화식의)첫번째 지하 동굴 안/같은날 낮**

완전한 어둠.

조금씩 화면이 밝아져(카메라 화면만, 실제는 계속 완전한 어둠만 지속되는 동굴 안) 희미하게 주변의 모습들이 보인다. 성인키 두배 정도 높이에 상당히 넓은 동굴인데, 벽은 무언가를 괭이나 삽으로 파낸 것처럼 군데군데 울퉁불퉁 패여 있다. 천정에서는 군데군데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진다.

한쪽 구석에 쓰러져있는 화식. 위쪽은 사람몸통보다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화식의 얼굴 옆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천정과 화식이 떨어진 구멍에서 흘러나온 물방울들은, 화식이 떨어진 곳과 반대방향으로, 모여 흐르고 있다.

**s#38. (지하동굴위)산-군부대/같은날 해질녘**

화식이 빠진 동굴 위쪽 산 정상 일대. 군부대 철책이 산 둘레를 따라 쳐져있다. 총을든 보초병, 산 아래를 보며 경계를 서고 있다. 산 꼭대기에는, 위성안테나와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산꼭대기와 위성안테나에 걸린 해, 주변에 물든 석양.

**s#39. (#37에 이어져)첫번째 지하 동굴 안/(전씬과)같은 시각**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화식, 눈을 번쩍 뜬다. 악몽에서 깬 것처럼.

(화식의 시선으로) 화식이 빠진 구멍을 올려다보면, 까만 어둠이 보인다. 단지 콩알만한 빛이 어둠속에 보이는데, 그저 빛이란것만 알 수 있을 뿐 동굴 안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검은 하늘위에 아주 작은 별 하나만이 보이는 것 같이.

화식, 동굴 사방을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다니며, 바닥과 벽을 만져 동굴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한다.

화식, 굴러떨어진 곳의 반대편쪽에 다다르자, 사람 몸통보다 조금 큰 통로가 나있는 것을 손으로 만져 확인한다. 통로 안으로는, 바닥으로 흘러온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다.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화식.

화식, 통로 앞 물이 흐르는 바닥 옆에 앉아 생각한다.

화식 물이 흐른단말이지... 어디로든... 더 깊은 땅속으로?(표정 굳은)... 동굴 밖으로?...(결연한)

화식, 흐르는 물에 입을 갖다 대고 조금 마시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모두 뱉어낸다.

기침을 하고, 구역질 해대며 침을 뱉어낸다. 썩은 물이라도 마신 것처럼.

**s#40. (지하동굴위)산-군부대/다음날 낮**

맑은 하늘 중천에 떠있는 해. 산꼭대기 위성안테나와 장비, 철책 너머 보초병 보인다.

**s#41. 수만의 고향마을/(전씬과)같은날 낮**

맑은 날씨. (#34의)마을의 집들과 논밭들은 폐허가 된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만의 구릉위 밭은, 군데군데 움푹 패이고 어지러진 채, (#26 비해)높이가 한층 낮아졌다. 말뚝과 말뚝에 달린 푯말만이 조금 기울어진 채 땅에 박혀 있다. 말뚝은, 성인 키높이 정도에 주먹만한 굵기의 튼튼한 나무막대로 되있다. 나무푯말은 ‘**강수만의 꿈의 밭**’이라고 굵고 크게 씌어져 말뚝 맨 꼭대기에 달려 있다.

**s#42. 토중의 고향집/같은 시각**

하사관과 사병들, 현관문 앞쪽을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데. 문 위쪽이 3분의 1정도 드러나있고 (#33.보다) 현관문 옆쪽 부분도 드러나 있다.

하사관 (삽으로 열심히 흙을 파면서) 자 조금만 더하면 된다! 힘들 내자!

카메라, 멀리서 마당과 구조작업중인 현관을 비추면,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얽힌 나무와 흙들 사이로 푸른 막대기같은 것이 조금 솟아나 있는데. 멀고 작아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카메라, 수직단면을 따라 흙 아래로 내려가면, 흙과 나무줄기와 가지들에 묻힌 토중이 누워있다. 토중 주변과 그 위쪽 흙들 사이로 군데군데 엉킨 나무들이, 흙의 압력을 줄이고, 약간의 숨쉴 공간도 확보해주고 있다.

토중의 몸통 옆에는, 대나무가 땅위까지 곧게 뻗어서 지면 위로 몇 센티쯤 솟아나있다. 푸른 막대기의 실체다!

기진맥진한 토중, 쉰 목소리로 짜내듯 외친다. ‘살려줘’.. ‘여기야 여기’.. ‘야~~~’

카메라, 수직단면 따라 올라가 구조현장을 비추면, 토중의 외침은 땅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군인들, 현관문 앞에서 삽질 계속한다.

<시간 경과>

클로즈업. 완전히 지쳐, 죽은 듯 꼭 눈을 감고 있는 토중 얼굴.

**s#43. 동굴 사이 통로-2번째 지하 동굴/같은 시각**

눈을 부릅 뜨고, 미친 듯 눈 앞의 흙을 손으로 파내는 화식. 몸통보다 조금 큰 통로에 엎드린 채다. 향하는 방향으로 바닥에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다.

겨우 들어갈만큼 흙을 파내고 그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화식. 머리 내밀면, 처음 굴러떨어진 곳과 비슷한 동굴(#37, #39)이 또 나온다. 천정 곳곳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고, 바닥에는 중앙쪽에 물이 조금씩 화식이 들어오는 곳 반대편으로 흐른다. 그곳엔 또, 사람 몸통보다 조금 넓은 통로가 있다.

통로를 빠져나와 몇 미터쯤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며 손을 더듬어 확인하는 화식.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벌렁 드러눕는다.

카메라, 동굴위로 수직단면을 따라 (10미터 높이) 올라가면, 동굴이 보이는데. 화식이 있는 동굴보다 2배쯤 높고, 옆으로는 학교운동장만큼의 넓은 공간이 하나로 되있다.

동굴 안쪽엔, 동굴을 꽉 채운 하나의 큰 단층건물이 자리잡고 있는데, 여기저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건물 가운데는, 넓은 복도 통로가 보이고, 왼편에는 넓게 구획된 공간(방사능 피폭 연구기지 지휘센터), 오른편에는 열 개 정도의 병실(기지병실)이 좌우로 계속 이어진다. 지휘센터에는 많은 군인들이, 서너 병실엔 의료장비들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환자들이 보인다. 지휘센터의 군인들중엔, 군복위에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많다.

카메라, 수직단면 위로 (50미터 정도) 올라가 지하를 벗어나면, 산위의 위성안테나와 장비가 보인다.

**s#44. 몽타주**

- 어느 산속. 맑은 날씨의 아침. 나무에 새한마리 앉아 밝고 활기차게 지저귄다.

- 어느 시골 논밭. 한여름 들판의 곡식과 작물들이 짙푸르게 익어가고. ‘꼬끼오’ 닭의 - 힘찬 울음소리가 들판과 마을에 울려퍼진다.

- 주택가 앞 도로에 활기차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주택가 옆 체육공원에서 평화로이 - 운동중인 사람들.

**s#45. 청평시 어느 모텔 앞/‘대폭우’ 3일 후 낮**

모텔 입구를 나오는 수만. 며칠간 면도 안한 수염 자라있고, 꾀죄죄하고 초췌한 모습.

어디론가 걸어간다.

**s#46. 수만의 구릉위 밭/같은날 낮**

중앙에 서서 작물이 남아있지 않은 밭을 둘러보는 수만. 가로 걸어가 말뚝을 어루만지는데. 얼빠진 표정이다.

플래시백. (#34의 조금 전)

마을의 집들, 모두 물에 잠겨있고, 폭우가 쏟아진다.

수만, 강가할아버지와 할머니 노인부부가 (#34 구릉위 밭의)말뚝을 부여잡고 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거센 물살에, 셋은 몸이 흔들거리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만은 물살의 아래쪽에 서서 노인부부가 휩쓸리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기도 하다.

물은 점점 더 차오르고, 몸을 가누기가 더욱 힘들어지며, 표정이 일그러지는 세 사람.헬리콥터 소리, 작게 들린다. 셋은 듣지 못한다.

헬리콥터 소리, 점점 크게 들린다. 셋은 위를 쳐다보고, 구조용 사다리가 그들에게

내려온다.

수만과 노인부부의 얼굴엔,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강가할아버지, 기특하다는 듯 수만을 보며 미소짓는다.

현재.

수만 (푯말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강수만의 꿈의 밭이었는데..

(큰소리로 절규) 풍년이었단말이야!!

**s#47. 고속버스안/같은날 낮**

달리는 고속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수만.

무릎 위에 놓인 나무푯말을-말뚝에 달려 있던-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있다.

**s#48. 수만의 서울집/같은날 오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만, 표지판을 들고 있다. 수만의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토중의 부인이 현관문 앞에 서있다.

수만 (토중부인 보며 흠칫) 제수씨..

토중부인 (주저앉아 울먹이며) 아이고.. 아이고오..(소리내다 기운없이 울기만 한다)

수만부인 (앉아서 토중부인 붙잡으며) 진정해요. 현수엄마.. 좀만 더 기다려봐요 우 리..

수만 (멍하니 쳐다보다 부인향해) 어떻게 된거야?

수만부인 (앉은채로) 여보!! (말을 잇지 못한다)..

수만 (눈을 크게 뜬다)

<시간 경과>

손에 든 표지판을 떨어뜨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는 수만. 수만부인은 서 있고 토중부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토중의 부인과 수만의 부인도 이내 뒤를 따른다. 뚱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남아 있는

수만의 두 아들.

**s#49. 토중의 고향집/같은날 오후**

바닥까지 드러난 현관문 앞. 포크레인이 현관 앞쪽을 넓게 파고 있는데, 무척 조심스럽다. 하사관과 사병들, 삽을 들고 지켜본다.

마당 중앙에는, 쓰러진 나무들과 흙더미 사이로, 대나무가 50센티미터쯤 솟아있다.

사병1, 삽을 내려놓고, 대마무쪽으로 걸어온다.

사병1 (대나무를 신기한 듯 보며) 오! 이건 머냐? (위아래로 살펴본다)

(대나무를 계속 보며) 이리로 와보시겠습니까? 여기 좀 보셔야겠습니다. 대나무가... 대나무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사관 (사병1 보며) 뭔 대나무 타령이냐. 이 난장판에. 힘들면 그늘에서 쉬어.

하사관과 다른 사병들이 대나무쪽을 찬찬히 보는데, 분명 땅위로 한참 솟아오른 대나무다! 하사관과 다른 사병들, 삽을 놓고 우르르 대나무 주위로 몰려든다. ‘아침엔 없었잖아’ ‘아닙니다, 뭔가 쬐끔 보이긴 했습니다’ ‘보이긴 머가 보여?’ ‘대나무 맞냐?’ 사병들끼리 정신없이 주고받으며 산만하다.

그때, 대나무가 조금 흔들린다. 누군가 땅속에서 발로 차기라도 하듯.

잠시 후 또 흔들린다. 군인들 모두 조용히 대나무만 쳐다본다.

잠시 후, 좀 더 강하게 흔들린다. 군인들 놀란 표정들.

하사관 (뭔지 알겠다는 듯) 야.. 여기다 여기!

(큰소리로) 모두 삽들고 집합!!

<시간 경과>

마당에서 조금 떨어져 설치되있는 출입금지라인. 그 앞에서 사병 2명과 수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옆의 토중부인과 수만부인이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집안을

살펴본다. 수만과 부인들을 두 팔로 막으며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하는 병사들.

‘아니.. 나도 삽질하겠다니까!’ 하며 들어가려고 애쓰는 수만.

마당 중앙에서 한참 삽질을 하던 하사관과 사병들, 멈추고 소리를 지른다. ‘보인다 보여’. 삽을 던지고 손으로 흙을 파내는데.

수만과 두 부인들, 통제군인들까지 대나무쪽으로 뛰어온다.

계속 파내자, 대나무 옆에 사람몸통이 조금 보인다.

몸통 위쪽 파내자 토중의 얼굴이 보이는데, 반쯤 기절해서 눈을 뜬 듯 만 듯 멍하다.

수만 토중아!

토중부인 여보오!

토중 (눈을 살짝 뜨고 베시시 웃으며) 어..

<시간 경과>

앰뷸런스에 실리는 토중. 옆에 같이 올라타는 수만.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앰뷸런스. 바라보는 군인들, 수만부인과 토중부인.

사병1 (하사관 옆에서) 대나무가 정말 빨리 자라지 말입니다.

하사관 (어리둥절) 그런가봐. 땅도 뚫고 말이지.

토중부인 (한결 기운차린 모습으로) ‘우후죽순’ 자란대요. 곧디곧은 대나무가요.

**s#50. 병원 휴게실/같은날 낮**

휴게실 의자에 앉아있는 수만. 음료수캔 하나를 자판기에서 뽑아 오는 수만부인

수만부인 (음료수 건네고 자리 앉으며) 이거 마셔.

수만 (의아한 듯 보며) 왜? 뭔 할 얘기가 있길래?

수만부인 전화만 했지. 우리도 이제 보는 거잖아. 당신도 몸좀 추스려야 되는데.

(눈흘기며) 생사기로에서 구조됐으면 얼른 집에 와야지. 뭔 미련이 있다고 3일이나 거기서 방황을 해.

수만 (음료수를 단숨에 마시고) 그냥 올 수가 없더라.

수만부인 그래... 잘했어. (수만 보며) 여보.

수만 (부인 보며) 왜? 뭐 또 할말 있어?

수만부인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만 ?

수만부인 (한숨지으며) 화식씨가 몇일째 연락이 안된대...

수만 (멍)

수만부인 전화연결도 안되고, 위치추적도 안된대... 화식씨 부인이 지금 산골집에 가 있어.. 경찰하고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대..

수만 (위를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 한다)

(일어서 분노) 이런 뭔 옘병할 비가 백년만인가 천년만인가 쏟아져 갖고

말야!! (다리 풀려 주저 앉는다)

**s#51. 3번째 지하동굴 안/같은날 오후**

(#43의 동굴 한쪽 끝을 또 통과해야 나오는)동굴 한쪽 벽에 있는 철문. 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 화식. 철문에는 두꺼운 회전손잡이가 달려있고, 바닥의 물은 철문쪽으로 흐르는데, 철문 앞에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화식, 온 힘을 다해 낑낑대며 손잡이를 돌려보는데, 꿈쩍도 안한다.

숨을 잠시 가다듬고, 또 돌려보지만, 꿈쩍도 안한다.

여기 저기 휘청이며 걷다, 한쪽 구석에 털썩 대자로 드러 눕는 화식.

손을 살짝 움직이는데, 손 끝에 딱딱한 물체가 닿는다. 집어들고, 더듬어 모양을 확인하는 화식. 공사판에 흔히 나뒹기는 쇠파이프다.

다시 회전손잡이에 다가가, 쇠파이프를 끼우고 힘껏 돌린다. 조금 움직인다. 또 힘껏 돌리면, 또 조금 움직인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는 화식.

잠시 숨을 고르다, 바닥에 흐르는 물쪽을 본다.

잠시 후, 미친 듯 기어가 입을 들이대고 물을 마시는 화식. 물맛이 몹시 역겨운지 구역질을 해대고 대부분 뱉어낸다. 다시 얼굴을 파묻고 들이마시는 화식. 참고서 꿀꺽. 또 꿀꺽꿀꺽. 또 꿀꺽꿀꺽.

눈을 부릅 뜨고 벽에 기대 앉는 화식. 잠시 숨을 고른다.

화식, 일어나 쇠파이프를 끼우고, 사력을 다해 돌린다. 이전보다 더 돌아간다. 또 한번 온몸의 힘을 쥐어짜 돌리면, 손잡이가 90도 돌아간다.

손잡이를 안으로 잡아당기면, 삐그덕 소리 내며 육중한 철문이 열린다.

문 바로 앞에 빽빽하게 자리잡은 나무와 덤불이 동굴벽에 그림자를 만든다. 화식은, 좁은 틈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에도 너무나 눈이 부시고, 감은 듯한 실눈으로 밖을 본다.

나무와 덤불을 헤치고 걸어나가는 화식. 몇 미터 헤치고 나아가자, 자신의 마을과 집이 산 아래로 보인다. 몹시도 초췌한 화식, 살았다는 안도의 표정.

**s#52. 화식의 고향집 마당/같은날 해질녘**

해 지는 산골마을은 어둑하기만한데, 불을 전혀 켜지 않아 마당은 더 어둡고 침울.

화식의 부인과 마을주민 할머니(산골할머니)가 마루에 앉아있다. 화식 부인,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 있고, 산골할머니가 다독이고 있다.

길을 따라 싸리문쪽으로 걸어오는 화식, 화식부인과 산골할머니는 보지 못한다.

싸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화식, 고개를 드는 화식부인과 돌아보는 산골할머니.

화식부인 (자리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여보..

산골할머니 (화식에게 다가가) 아이구 이게 누구여. 살아있었네. 살아있었어.

화식부인 (벌떡 일어나 화식에게 달려가) 여보!

(화식을 여기저기 살피며) 괜찮아??

화식 (힘들게 미소지으며) 괜찮아..

화식, 갑자기 털썩 쓰러지는데 정신이 혼미하고 몹시 힘겨워한다.

‘여보.. 여보’하며 화식을 붙잡고 어쩔줄 몰라하는 화식부인. ‘아이구야..어쩐댜..’하며 보고 있는 산골할머니.

**S#53. 화식의 고향집 황토별채 안-마당/(전씬에 이어져)**

비몽사몽 눈을 가늘게 뜨고 이불위에 누워있는 화식. 눈주위와 볼은 열로 빨갛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핸드폰을 들어 119에 전화하는 화식부인. 화식,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한다.

화식부인, 전화를 걸다말고 화식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댄다.

화식, 몹시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손가락으로 황토방 밖 마루쪽을 가리킨다.

화식부인 (다 듣고나서) 당신도 참..(한숨 쉬고) 알았어. 조금만 참아.

화식 부인, 방문 열고 마당으로 나와 마루로 간다. 마루 한쪽에 걸린 (조각난 칡이 들어있는) 양파망을 통째로 들고, 황토별채로 들어간다.

<시간 경과>

황토별채 안. 자리에 누운 화식을 화식부인이 일으켜 앉히고, 사발에 담긴 탕재를 먹인다. 화식, 탕을 꿀꺽꿀꺽 모두 마시고 자리에 눕는다.

화식부인 (걱정스럽게)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119 부를까?

화식 (고개를 가로저으며) 괜찮아.. 내일이면...(힘들어하는) 괜찮아.. 질거야..

**S#54. 화식의 고향집 황토별채 안-본채 안방/다음날 아침**

누워잠든 화식,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화식부인. 한결 좋아진 화식의 얼굴.

화식 (눈을 뜨고 부인을 발견하고) 여보... 미안해.

화식부인 (살짝 미소) 얼릉 기운이나 차려.

<시간 경과>

점심때가 되어, 간장에 흰죽을 먹고 있는 화식. 지켜보는 화식부인.

화식 여보.. 나.. 효소좀 먹어야겠다.

화식부인 ?

<시간 경과>

초가 본채 안방.

(#16의) 진열장에 15리터 유리병 4개, 5리터 유리병 4개가 나란히 있는데,

첫 번째 15리터 유리병 1개에 2분의 1쯤 약초효소액이 담겨있고, 나머지 병들은 비어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병에는, 큼직하게 종이가 붙어 있고, 글씨 씌어있다.

화식부인, 유리병들 쳐다본다.

클로즈업. 15리터 유리병들

약초효소액 담긴 첫 번째 병의 종이에는, ‘봄·여름: 쑥,당귀,두릎,곰보,가시오가피,삼백초,어성초,갈대뿌리’ 써있다. 두 번째 병의 종이에는, ‘가을·겨울:  ’ 써있다.

화식부인(E) 좋은 것만 잔뜩.. 모으고 있었네..

**s#55. 화식의 고향집 황토별채 안/다음날 아침**

화식부인과 화식, 함께 밥을 먹고 있다. 화식, 거의 회복된 모습이다.

화식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오늘 가보자.

화식부인 그래. 토중씨도 보고.. 가는 김에 당신도 검사 한번 받아보자.

화식 (무덤덤하게) 검사? 뭘 검사까지..

화식,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며 배를 움켜쥔다.

화식부인 (놀라며) 여보! 여보! 왜그래!

화식 (이내 괜찮아져) 괜찮아 괜찮아.. 몇일 굶다보니까 위장이 좀 상했나봐. (하며 어색한 미소)

화식부인 (눈흘기며) 병원가자! 얼른!

**s#56. (#50의) 병원 휴게실/같은날 오후**

토중부인, 수만부인, 화식부인이 휴게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다.

토중부인 (살짝 미소) 이제 다 모였네.. 모두 무탈해서 참 다행이에요.

수만부인 (화식부인 보며) 화식씨도 엄청 고생했나 봐요? 그래도 오늘 보니 괜찮은 것 같네..

화식부인 (어쩐지 불안한) 아직 속이 좀 안좋은가봐요. (미소지으며) 차차 괜찮아질 거에요.

수만부인 (비꼬듯) 우리 남편들도 참 특이한 분들이에요.. 맨날 고향타령하더니..

           고향땜에 다 죽다 살아났네. 에혀..

토중부인 그러게요. 뭔 옆동네 살면서도 고향집에 가야허네 어쩌네 하더니만..

화식부인 힘 남았을 때 고향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대요. 가서 살다가 고향에 묻힐거라고.

토중부인 하긴. 자꾸 가고 싶고, 살고 싶으면 가서 살아야죠. 고향이건 어디건.

수만부인 남편이 그러대요.. 내가 강남 큰 평수 아파트에 살고 싶은거랑 자기가

고향에 살고싶은거랑.. 다를게 없다고..

토중부인 우리 남편도 그런말 했어요.. 고향집에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스토리속에 살고 싶은 거라고..

화식부인 그렇네요.. 우리 남편들한텐 가장 소중한 스토리가 고향인가 봐요..

수만부인 우린.. 도시의 화려함이 가장 소중한 스토리고??

토중부인,화식부인 그런 셈이죠..

셋은 까르르르 웃는다. 이제 그동안의 염려와 긴장이 풀린듯하다.

**s#57. (전씬에 이어져)병원 병실/같은 시각**

병실에 누워있는 토중과 옆에 서있는 화식, 수만.

수만 (토중 보며) 야. 너 인제 퇴원해도 되.. 밥잘먹고 사지멀쩡한데  이러고 있냐?

토중 (온몸을 비틀며) 아이고. 땅속에서 하도 짓눌렸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이네.

화식 (웃으며) 그래 애썼다. 치료비도 다 나온다니까 쉬는 김에 푹 쉬어라.

토중 (갑자기 슬픈 얼굴로) 나가봤자야... 내 숲도 없다.

수만 (한숨쉬며) 내 밭도 없구나. 반토막 남은 집도 물고기집 될거고.

토중 근데 화식아. 너 어떻게 된거냐? 땅이 갑자기 푹 꺼지고.. 눈떠보니 동굴 이고.. 기어댕기다 문열고 나왔다고??

화식 (어이없어하는 헛웃음 지으며) 말도 마라.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더라..

(두 친구 번갈아 보며) 우리 셋 다 그랬지뭐.. 하여간 난 물땜에 살았다.

수만 물? 먼 물?

화식 (찡그리며) 물 맛은 정말 괴상하게 안좋은데.. 하여간 물흐르는 길따라 가 서 출구를 찾았고.. 그 물 안마셨음 기운 없어서 문을 열지도 못했어..

수만 (관심 보이며) 물 맛이 어떻길래??

화식 (찡그리며) 흐음... 차가운데 또 뜨겁고.. 아무 맛도 없는데 묘하게 비린...

(오만상 찌뿌리며) 하여간 그냥 살기위해 마셨다.. 살기위해...

수만 나는.. 물에 떠내려갈려다 살았고.. 토중이는.. 흙에 파묻혔다가 살았고..

화식이는.. 동굴에 갇혔다가 살았네..

토중 그래.. 인제 몸만 완전히 회복하면 다 괜찮지뭐..

(화식 얼굴 보며) 근데.. 너 안색이 좀 안좋다.. 후유증이 있나본데?

화식 (안색이 창백하다) 나한텐 좋은 약초가 있잖냐.. 금방 좋아질거야..

수만 그래.. 토중이 퇴원하면 우리 또 거하게 한잔 하면서 회포나 풀어보자~

토중 (화색 돌며) 당연하지!

화식, 수만, 토중의 부인들이 병실문을 열고 들어온다.

토중부인 회포들은 좀 푸셨어요?

화식부인 (화식 곁에 와서) 당신. 검사좀 받아보자.

토중 그래. 겉은 멀쩡해도 모른다. 검사해봐...

화식 차차 좋아질텐데 뭘..(하면서 우물쩡거리는데)

화식,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몹시 고통스러워한다. 얼굴은 새하얘지고, 눈은 충혈되고, 쇼크가 온 듯 몸을 부르르 떨며, 입에서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진다.

화식아! 화식씨! 부르며 모두 놀라 달려드는데...

**s#58. 병원 중환자실 앞/(전씬에 이어져)**

중환자실 문앞에 서있는 의사와 화식 부인.

의사 (심각) 아무래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겠습니다.

화식부인 (눈을 크게 뜨며) 어디로요? (울먹이며) 도대체 이사람을.. 지금 어디로

옮긴단 말이에요?

의사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에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하며 가버린다.)

화식부인 (망연자실해 운다)

**s#59. 원자력병원 앞/같은날 저녁**

원자력병원 간판과 정문이 보인다.

앰뷸런스 소리 들린다.

**s#60. 원자력병원 중환자실/(전씬에 이어져)**

화식, 의식 잃은 채 인공호흡장치에 의지하고 있다. 화식부인, 괴로운 표정으로 옆에 앉아있다.

**s#61.  원자력병원 원장실/같은 시각**

명패 앞 의자에 앉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병원장.

병원장 (심각하게) 여기 원자력병원입니다..

꼭 아셔야할 환자가 한명 들어왔습니다.

**s#62. (#43의)군부대 지하기지 지휘센터-지휘관실/같은 시각**

대형 모니터, 여기저기 전자장비와 컴퓨터, 모니터가 곳곳에 놓여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흰 가운을 군복 위에 걸친 군인들이 일에 열중이다.

한쪽 구석에는, 칸막이로 구분된 널찍한 사무공간(지휘관실)이 있는데,

군복 위에 흰가운을 걸친 비밀기지 지휘관(기지지휘관: 대령,55)이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다. 군복입은 부관(소령,50), 응접탁자 앞 쇼파에 앉아 있다.

기지지휘관 어떤 환자입니까? (잠시 듣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 듣고) 네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헬기를 즉시 보내겠습니다. (하고 끊는다.)

기지지휘관 (부관 향해) 1급 특수환자가 원자력병원에 있네. 당장 헬기로 데려오게.

부관 (얼떨떨한) 네? 네! 즉시 후송해오겠습니다!

부관, 황급히 지휘관실을 나선다.

**s#63. 기지지휘관실/몇일 뒤**

지휘관과 부관, 응접 테이블 앞 쇼파에 마주보고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장의 사진이 놓여 있다. (#51의)화식이 탈출한 상황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기지지휘관 (화식과 출구가 확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서 나왔지? (부관을 날카롭게 본다.)

부관 (굳은 표정)..

기지지휘관 자네는 여기 광산을 만들 때부터 쭉 있었지?

부관 네. 20년 전 우라늄광산을 비밀리에 개발할 때.. 공병대 소위로 참여했 습니다.

기지지휘관 난 의사이자 물리학자일 뿐이네. 다른건 잘 모르네.. 설명해보게..

부관 네. 아시다시피 채굴층 하나엔 방사능 피폭 연구기지를 만들고.. 나머지 채굴층들은 모두 폐쇄했지 않습니까? 부대밖 출구 하나만 남기고 말입니 다. 이 출구는 밖에선 들어올 방법이 없고.. 안에서도 3명 정도는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기지지휘관 그래?

부관 솔직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폐쇄된 채굴층에

들어갔을 수도 없고.. 연구기지에 들어온 흔적도 없고.. 채굴층에 들어갔 다해도.. 빠져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지지휘관 정말 그런가?

부관 아무래도.. 이사람을 심문해봐야 알겠습니다.

기지지휘관 (한심해하는) 의식불명 중환자를 심문해??

부관 ...

기지지휘관 (차분하게) 그래.. 여기가 방사능 피폭환자에게는 최고의 시설이니까..

지켜봐야겠지...

**s#64. 지하기지 병실/ 몇일 뒤**

(#43의 병실들중 하나) 각종 의료장비에 연결되어있는 화식. 창백하고 병색이 완연하지만 의식은 또렷하다. 화식 얼굴엔, 빨간 반점들과 군데군데 벗겨진 피부들.

기지지휘관과 부관, 화식과 몇 미터 거리를 둔 채 서 있다.

기지지휘관 하필 거기서 씽크홀이 발생했군요.. 기적적으로 탈출하셨구요...

화식 (눈을 부릅 뜨고) 나는 왜.. 이런겁니까? 도대체 왜??..

기지지휘관 (차분하게) 방사능 피폭을 당하신겁니다.

화식 ??

기지지휘관 기밀사항들이지만.. 선생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아셔도

되니까요..

그 지하동굴은 페광된 우라늄광산입니다.. 그 위쪽으로 몇 개의 폐광층이 또 있지요..

화식 ...

기지지휘관 폭우 때문입니다.. 이번 폭우가 너무 심해서.. 폐광층들에서 지하수가

그 동굴로 모두 흘러가.. 농축이 된겁니다.. 평소라면... 치명적일정도로 농축되진 않았을겁니다..

화식 (경악하는) 얼마나.. 얼마나 심합니까? 상태가...

기지지휘관 (냉정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그 물을 직접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은 없습 니다.. 잠시 연장을 할 순 있지만.. 길어도... 올 가을을 넘기지 못합니다.

<시간 경과>

병실에 혼자 남은 화식. 넋이 나간 표정이다.

기지지휘관(E) 잠시 연장을 할 순 있지만.. 길어도 올 가을을 넘기지 못합니다.

화식 (흔들리는 눈동자)

기지지휘관(E)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면.. 선생님은 명예로운

죽음을 얻고.. 가족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겁니다.

선생님은.. 부대의 군인들을 구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질겁니 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될겁니다.

화식(E) 내가.. 뭘하란 말입니까?

기지지휘관(E) 시신을.. 기증하십시오.. 연구를 통해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겁니다.

화식(E) 기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지지휘관(E) 핵폐기물로 처리될겁니다.. 사후에 말이죠..

화식 (크게 흔들리는 눈동자)

기지지휘관(E) 기증하시면.. 연구가 끝난 후 시신을 따로 안치해 드릴겁니다.

화식(E) 어디에.. 말입니까?

기지지휘관(E)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공동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식(E) 고향에... 고향에 묻히고 싶습니다...

기지지휘관(E)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신체는 심각한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아무데나 묻힐 수 없습니다..

화식(E) (분노하며) 기증을 한다니까!! 나한테도 봐주는게 있어야지!!

기지지휘관(E) .....

기지지휘관(E) 좋습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식(E) (진정된 목소리로) 뭡니까??

플래쉬백.(화식이 병실에 혼자 남기 전)

기지지휘관 (화식의 팔과 다리 보며) 팔과 다리는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화식 (눈동자 크게 흔들리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

**s#65. (화식의 장례식) 수목장 장소/(몇달 뒤) 늦가을 오후**

수만, 토중, 수만부인, 토중부인 그리고 화식부인과 딸(9세)이,

단풍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우람한 나무 한그루 앞에 늘어서 있다.

기지지휘관과 부관, 그 옆에 총을 든 군인 4명은 조금 떨어진 측면에 도열해 있다.

주변은 온통 단풍이 무르익은 나무들로 가득하고, 떨어진 단풍잎들이 수북이 바닥에 쌓여있다.

가운데 화식부인과 양옆의 수만과 토중, 함께 화식의 유골함-사지만 잘려 화장된-을 나무 아래 구덩이에 안치한다.

수만 (마음속으로) 화식아.. 니 고향은 무탈하잖냐. 그니까.. 편히 쉬어라.

토중 (마음속으로) 화식아.. 니가 원하던대로 고향에서 쉬게 됐잖아.. 이제라도 맘껏 고향을 즐겨라.

화식부인 (마음속으로) 여보.. 당신이 너무 좋다던.. 단풍이 물든.. 고향이야...

<시간 경과>

유골함 위에는 흙과 그 위에 단풍잎들이 덮여 있고, 모두들 자리에 서서 안치된 곳을 바라보고 있다.

도열해 있던 4명의 군인들, 총을 높이 들어 발사자세를 취한다.

-인서트. (#2의)약수터에 앉아 있는 실향민노인

실향민노인 (산 너머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에 한번 가봤으면...

죽어서 묻히기라도 한다면.. 좋을 것을.. (깊게 한숨)

**s#66. 지하기지내 시신연구실/같은 시각**

시신연구실 중앙에 위치한 사방이 밀폐된 방. 대형유리창 통해 안이 훤히 보인다.

밀폐된 방 중앙에는, 관 크기와 모양의 금속 용기가 놓여 있는데,

용기에서 나온 여러 줄의 케이블이 주변 전자장비와 연결되어 있다.

밀폐된 방의 대형 유리창을 통해 방을 바라보는 곳에, 방사능 차폐복을 입은 연구자들 몇 명이 서있는데, 그중 한사람은 눈금바늘이 있는 회전스위치 앞에 있다.

회전스위치를 한번 돌리면, 타앙! 총성 울리고,

CG. 연결된 전선을 따라, 전기가 번개처럼 용기안까지 흐른다.

회전스위치를 좀 더 돌리면, 타앙! 총성 울리고,

CG. 연결된 전선을 따라, 또 전기가 번개처럼 용기안까지 흐른다.

회전스위치를 좀 더 돌리면, 타앙! 총성 울리고,

CG. 연결된 전선을 따라, 또 전기가 번개처럼 용기안까지 흐른다.

회전스위치를 붉은 눈금 표시된 영역 안까지 힘껏 돌리면, (총성은 없고)

CG. 연결된 전선을 따라, 전기가 번개처럼 용기안까지 흐르고, 용기전체에 스파크가 튄다.

**S#67. (#66의)수목장 장소/같은날 해질녘**

카메라, 정면으로 수목장 나무와 아래 무덤을 비춘다.

카메라, 나무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90도 돌아가면,

화식이 잠든 단풍이 물든 나무, 그 너머 화식의 집과 고향마을과 둘러싼 산, 그 너머 서쪽 하늘에 물든 석양이.

차곡 차곡 겹쳐 보인다.

(슬로우) 화식이 잠든 나무에서 단풍잎 하나가 무덤위로 떨어진다.

무덤에 닿자마자, 돌풍이 불며 무덤과 주변에 쌓여있던 단풍잎들이 하늘로 솟구친다.

이제, 또 다른 돌풍이 불며 솟구친 단풍잎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화식의 고향 곳곳으로...

그리고. 암흑. 무덤속과 같은.

끝.